

건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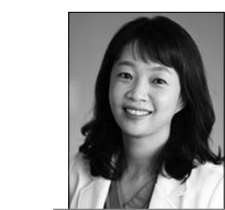
피부 흡수 환경호르몬 성 조숙증 확률 높여 백신은 '씻기'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켰는데, 왜 우리 아이가 성 조숙증 진단을 받은 건가요?” 유전 요인 등을 제외하면 성 조숙증 유발 원인으로 ‘소아비만’과 ‘환경호르몬 노출’ 등을 주 위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소아비만은 아이가 평소 과식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등 관찰을 통한 원인 추적이 가능하다. 반면 환경호르몬에 자주 노출되면서 성 조숙증이 발병한 경우는 보호자가 원인을 알기 어려울 성 조숙증을 방치하다가 진단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먹었다면, 씻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손 씻기는 생명을 구하는 습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손 뿐만 아니라 머리 감기, 샤워하기를 통해 깨끗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성 조숙증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건강 유해성에서 우리 아이 바른 성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다. 특히 아이들은 화학 성분 노출이 성인에 비해 민감하므로 샴푸, 비누, 샤워용품 등의 성분이 자연유래 성분인지 아이에게 해가 되는 화학 성분은 없는지 식재료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 위협, 환경호르몬 노출 등으로 올바른 씻기가 건강한 먹거리 만큼 중요 해졌지만 코로나로 인



윤 정 신
히우연원의원 대표원장

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출하지 않았으니 씻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집 안에서도 씻기를 통한 질병 예방은 필수다. 생각보다 많은 환경호르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호르몬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 있는 영수증을 손에 땀이 난 상태로 쥐고 손을 씻지 않거나 캔 통조림 음식이나 플라스틱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난감을 주로 가지고 놀면서 샤워하지 않고 잠든다면 성 조숙증 발병은 물론 전반적 건강 유해성도 높아진다.

환경호르몬은 외부 환경에서 우리 몸 속으로 흡수 되어 우리 몸 속 정상적인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나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분비교란물질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은 직접 섭취 외에도 피부를 통한 흡수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와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과 유사

한 역할을 해 성호르몬작용을 통해 내분비계 질서를 망가뜨린다. 특히 사춘기가 전 시절 아동기 신경·내분비 발달은 환경적인 요인에 연약하다. 환경호르몬과 같은 화학물질의 영향은 생식기관 발달이나 신체 성장, 그리고 뇌 발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토록 유해한 환경호르몬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샴푸로 머리를 감고, 따뜻한 음식이 플라스틱 통에 담긴 채 배달되는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 불건을 산 뒤에 받는 영수증을 손에 쥐는 등의 생활 전반에서 일어난다.

특히 보편적으로 강조되는 성분인 비스페놀A다. 젓병, 식품용기, 영수증 감열지, 유아용품, 장난감, 통조림 캔 등에 쓰이는 물질로 여러 연구에서 비만, 심장질환, 간기능 이상 등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남자아이 생식기관 발달에 영향

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 역시 플라스틱 첨가제로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장난감, 화장품, 의류기기 등 현대인의 생활용품에 거의 안 들어간 제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인다.

특히 피부로 흡수된 BPA는 인체에 잔류하는 시간도 더 길다. 실제 영수증을 뺄수록 BPA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유해성은 섭취 뿐 아니라 피부 접촉으로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환경호르몬 위험으로 부터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먹거리 뿐 아니라 생활 전반 건강과 직결된 위생용품, 생활 용품 등의 성분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호르몬의 잦은 노출이 특정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 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

성 나가는 불건을 산 뒤에 받는 영수증을 손에 쥐는 등의 생활 전반에서 일어난다. 특히 보편적으로 강조되는 성분인 비스페놀A다. 젓병, 식품용기, 영수증 감열지, 유아용품, 장난감, 통조림 캔 등에 쓰이는 물질로 여러 연구에서 비만, 심장질환, 간기능 이상 등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남자아이 생식기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 역시 플라스틱 첨가제로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장난감, 화장품, 의류기기 등 현대인의 생활용품에 거의 안 들어간 제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인다.

기고문

여름철 풍수해, 초대받지 못한 손님맞이 위한 촘촘한 대비책 마련해야

폭염이 예고되었던 지난해 대한민국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재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 가족 사가가 이어졌다.

필자가 소속된 관할지역인 순창군도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설진강변 방류 실패로 인해 설진강과 인접한 4개 면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불 가피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전례 없는 침수피해에 주민들은 허탈한 가슴을 움켜쥐며 원통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 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장마철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안전수칙 준수 등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등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에 대피할 장소를 사전에 알아두고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태풍·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해안가,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을 시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며 전신주나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하도록 한다.



김 광 천
순창소방서 예산장비팀장

하천 등 고립 지역에서는 물을 건너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하며, 집으로 대피한 경우 노후주택 등의 안전에 대비하여, 출입하기 전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면사무소나 군청에 신고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해가 갈수록 개발다성 호우,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TV나 책에서만 접해온 기후변화가 실제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순창소방서는 올해에도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취약지역 중점관리 및 수방장비 점검, 기상특보 발효 시 소방력 재배치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준비 등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악몽처럼 되풀이 되는 물난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난시스템의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안전의 주체는 군민 개개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관심과 노력이 촘촘한 재난시스템과 맞물린다면 올해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설

전주시 광역소각장 문제

전주권 소각 시설 이전과 환경부 허가 신청이 반년이 지나도 특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 전주시의회를 통한 플라스틱 소각 시설이 여전히 허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인근 완주와 김제, 그리고 임실의 생활 폐기물까지 소각하는 하루 400톤 처리 규모의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완공된 전주 광역 소각장은 노후가 심각하다.

전주와 김제 등 4개 시군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4백 톤 가운데 최대 3백 톤까지만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현재 소각 처리하지 못한 채 쌓아둔 쓰레기가 1만4천 톤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인근에 고온으로 쓰레기를 분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플라스틱 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환경부 허가를 받지 못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올해 초 시설을 짓고, 시범 운영할 예정

이었지만 첫 삼도 뜨지 못하고 있다. 플라스틱 방식이 국내에서는 처음인 데다 시행 업체의 자격과 환경성 등을 놓고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에 따른 간접 영향 구역으로 지정된 삼천동 삼산마을에는 전주시에서 연간 6억 원의 가뭄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다른 14개 마을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소각장 운영 중단과 이전 설치를 요구해왔다.

현재 소각 시설의 운영 연한은 2026년 9월까지로 불과 5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소각 시설이 운영되기까지 6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보면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전주시는 플라스틱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 사업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이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이후의 소각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전북체육회 독립법인의 과제

전북체육회가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수법인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의 단체였던 체육회가 75년 만에 특수법인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도내 14개 시 군 체육회도 모두 법인 기관으로 전환했다. 이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이 회장직을 겸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형상 정치적 독립을 이뤘다.

그러나 임의단체 상태로는 재정적 독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는 법인 설립과 체육회를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생

활 체육 활동, 전문 체육 진흥,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부금 모집은 물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전북 체육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로 우뚝 서야 할 때이다.

특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